

2003 임단협투쟁 돌입

임금 50만원 정액인상, 주5일제 실시 등 관철키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인천일보, iTV, MBC 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동당, 사회당,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함께 지난 18일 부평구 심정도 한나라당 인천시지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방송 민영화 추진 정책을 규탄하고 지역 신문발전지원법, 정기간행물법, 신문시장독과점규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5면>

인천일보노동조합(위원장 정찬홍)은 2003년 임금협상안을 정액 기준 임금 50만원인상으로 확정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부서별 인력충원, 상여금 미지급분에 대한 우리 사주지급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편집국장 직선제, 자본잠식상태 해소, 사장의 직접 책임경영을 단협협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천일보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하고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매진하기로 했다.

11대 노조의 임금협상안은 지난 3월20일 '경영개선에 대한 노사합의안'을 통한 '사측은 전 직원의 임금수준을 인천 경기지역 신문사 가운데 최고의 수준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측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목표 달성, 증자 등 자금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경인지역 신문사 가운데 최고 임금을 받으려면 정액으로 50만원씩 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논의가 활발한 지역언론육성지원법에 합류하려면 보다 투명한 회사경영과 공정보도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 편집국장 직선제, 사장의 직접 책임경영 등을 단협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찬홍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신문육성지원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우리 노조의 임단협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회사는 약속을 지켜라

2003년 입단협이 오는 28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노조측 협상대표와 사측대표 12명은 첫 상견례를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게 된다.

올해 임금협상을 맞는 우리 노조의 주장은 노사간의 합의를 지키라는 단 한가지 요구밖에 없다.

사측이 자진해서 작성해 노조에 제시했던 지난 3월20일의 노사간 합의를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인 것이다.

인천일보 직원들이 극도의 저임금과 폭압적인 근무조건에 시달린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임금을 몇 퍼센트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근무여건이 이처럼 열악하니 이만큼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식의 경제주의적 요구는 일체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지 사측이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면서도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한 ‘노사간 신뢰회복과 화합’을 위해 사측이 먼저 제시했고 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손으로 서명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존이 걸린 회사 경영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사측의 목적을 달성한 뒤 노사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엎으려는 비열한 시도가 있다면 이는 노동자의 손으로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사측이 조합원들의 사장 연임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제안했던 합의안으로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보자.

오직 신화수 사장의 연임에만 골몰하던 사측은 이 합의안을 통해 최고의 임금수준, 사업 다각화, 증자, 자금유입 등과 함께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을 뼈곡히 늘어놓았다.

이런 약속들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은 된다는 점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사측은 인천일보 노동자들의 생존을 교묘히 이용해 신 사장의 연임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 우리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으로 합의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사측은 입단협이 다가오자 합의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말 그대로 상식이하의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장은 곁에 나서 연일 최고의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실무진들은 그 뒤에서 어처구니 없는 임금 동결 주장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경영진 위 아래가 입을 맞춰 한쪽은 거짓말을, 한쪽은 막무가내 식 버티기로 나가는 것 아닌 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입단협은 사실, 임금 인상이나 근무조건 개선 등 조합주의적 요구를 달성하는데 앞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 언론으로 인천일보가 거듭날 수 있느냐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과 공정보도를 보다 더 실천하는 언론으로 바로 서는 토대를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언론발전 지원법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경영의 투명성과 자본의 건전성, 신문윤리강령 준수, 신문윤리 실천요강 준수 등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일보 모든 가족들은 이번 입단협에서 노사간 합의안 준수를 사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만약 사측이 이를 외면할 경우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의 전면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언론 쟁취’ 한목소리

18일 한나라당사 앞 인천일보, iTV, MBC등 100여명 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8일 정오 인천을 비롯한 성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1천8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영방송 사수와 신문개혁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에서는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와 iTV, MBC 조합원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부평구 십정동 한나당 인천시지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한나라당의 방송 민영화 추진 정책을 규탄하고 지역 신문발전지원법, 정기간행물법, 신문시장독과점규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일보 편집 기획부 오승희기자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은 신문시장 정상화와 정간법 개정 등 산적한 언론개혁 과제들을 제쳐둔 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공영방송 말살과 방송 장악이라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언론대책위를 해체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하순봉, 이경재, 고흥길, 이원창, 김정부 등 5명의 위원들은 정치일선에서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음모를 철회할 때까지 양심적 개혁세력들과 연대, 내년 총선에서 낙천, 낙선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한나라당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규약 산별노조 규약으로 전환

16일 임시총회 열어 만장일치 통과

단체협약과 각종 노조활동의 지침 등을 명시한 인천일보 노조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으로 전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기존 인천일보 노동조합 규약을 폐기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을 새로운 규약으로 채택했다.

또한 언론노조 규약 범위 내에서 인천일보지부의 권한과 역할 등을 명시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다.

이같은 규약의 전환은 인천일보 노동조합이 지난 2001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기존 단위사업장 노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이에 맞는 규약 및 규정은 변경하지 않아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규약과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규약의 주체가 기존 인천일보사 노동조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바뀌게 됐고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언론노조의 인천일보지부가 됐다.

규약의 주체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바뀌에 따라 인천일보 노동조합 조합원은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특히 사측과의 모든 협상권한과 쟁의행위의 권한 등 모든 노조의 책임과 의무를 언론노조가 담당하게 됐다.

또한 조합원 자격도 기존에 인천일보사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였지만 이번에 바뀐 규약 및 규정에는 지부 및 산하기관,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까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조합원 자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회의기구도 총회를 중심으로 대의원회의의 역할을 강화해 각종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가 기존 1년(연임가능)에서, 2년(연임가능)으로 변경됐다.

이는 단체협약이 기존에 1년마다 체결하는 것에서 관련법이 바뀌어 2년 단위로 체결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사측과의 각종 협상에서 노조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주체와 권한도 기존 인천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새롭게 채택된 규약에 의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변경됐으며 인천일보지부 위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사측과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언론노조 규약에 의해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천일보지부는 이미 5명의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한데 이어 조만간 지역 내 주요인사들로 노조 고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11대노조 출범뒤 두달...

노조단합대회 등에 대부분 참석,
높은 지지에 투쟁의지 공고히 다져

이제, 시작이다

제11대 인천일보 노동조합이 출범한지 두달이 다 돼가고 있다. 노조는 출범식을 가진 지난 6월11일 이후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측의 조합원 가입 반려건에 대한 투쟁과 많은 조합원이 참석한 노조 단합대회를 들 수 있다.

사측은 지난달 16일 기획관리본부 조합원 4명 전원에 대한 조합원 가입 통보 반려 및 탈퇴시키라는 터무니없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집행부는 즉각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사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실시된 노조 단합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집행부는 단합대회를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측에 최후통첩과 함께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밟아갔다.

최후 통첩을 받은 사측은 공문 발송 보름여만인 지난 2일,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왔다.

또 지역신문발전 지원법 쟁취 등 조합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조 사무국장을 전임으로 추가 배치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특히 노사간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는 15일 창간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창민 관리이사는 노조사무실을 직접 방문, 노조 대의원회의 석상에서 “이사직을 걸고 반드시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했고 약속한대로 지난 15일 창간기념일날 격려금 20~30만원이 지급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집행부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런 승리는 조합원 모두가 인천일보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한치의 흔들림없이 굳게 단결한 결과이다..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성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여정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같은 유화 제스처가 일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측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언사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 공문을 보낸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회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담당 기자회견에서 신화수 사장은 “앞으로 노조의 활동에 정면대응 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지난 13일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사측은 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이미 보였다.

사측은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 노조의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결국 노조에 대한 갈날은 여전히 세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03년 임단협 협상에서도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 경우 노조집행부는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조합원들에게 약속한다.

전문내용

1. 지난 6월17일 발송한 총무.경리 담당자 노조가입 신청반려 공문이 본의 아니게 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귀 노조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2. 사측은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신문발전 지원법 제정까지 귀 노조 사무국장을 전임토록 하겠습니다.
3. 또한 사측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격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한 귀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언론육성지원법의 의미

‘시민’의 지방신문 토대마련

조·중·동 독과점 분쇄, 지방신문사 근무조건 향상

지역언론육성지원법.

말 그대로 지역의 언론사 육성을 위해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법이다.

우리 인천일보사를 육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진다 면 얼마나 좋겠는가, 반가운 일이다.

누차 언급됐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이 법이 왜 중요한지를.

우선 지방 일간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동배달제, 연합통신 기사 사용료 무상지원,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 금전적인 경비절감이 기대된다.

또 지역에서 개최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사를 기획, 유치하는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광고 대상 선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

기업들이 표현하듯 ‘한 곳에 광고가 게재되면 별때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신문사들과는 달리, 개혁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공인 받은 건강한 신문에 광고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분명한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건강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게 돼 구독자 확보에도 가시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란 점도 예상 가능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뭘까. 인천일보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인천일보만 보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 일간신문을 받아보는 가정이나 기업, 기관들중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구독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만큼 세 신문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만큼 매체파워도 크다는 말이다.

매체파워, 이 단어는 우리의 ‘밥줄’인 광고와 직결되는 용어다.

지역신문들간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광고시장의 수주경쟁은 이들 세 신문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우리의 광고시장은 이미 광고시장 점유율에서 방송에 밀리고 있는 신문시장 내에서도 이들 빅3와 지방신문사간, 그리고 다시 지방신문사들끼리의 싸우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

우리 신문사와 다른 동네신문사들끼리 벌어지는 광고싸움은 그 ‘단가’로 봤을 때 중앙 3사와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이들의 ‘매체파워’에 걸맞는 광고단가를 기업들이 제공하면서 우리들이 소비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그만큼 올라간다.

때만 되면 물가상승을 보도해 온 우리들 자신도 사실 이같은 기형적 신문 광고시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OO일보와 함께하면 당신의 아침이 달라집니다’는 식의 광고를 우리는 한 번쯤씩 본 기억을 갖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언제부턴가 신문사와 방송사간의 뉴스 보도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의 교양프로그램이나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도 빅3의 보도행태를 문제삼는 경우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정말 최근의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달라진 아침’을 맞이한 적이 거의 없다.

이들 세 신문의 논조나 시각은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역시 우리는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없는 형편에 애들 자전거 사줄 돈은 어디 있으며,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할 생각은 꿈이나 꿀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은 백화점 상품권까지 등장한 판국이다), 이들 신문에서 떠들 어 대는 논조를 거의 여과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어쨌거나 글밭과 입심으로 먹고 사는 신문쟁이들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을만큼 우리는 교양이 있지 못하며, 사실 살면서 그런 고민에 빠져들 여유도 없다.

그냥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십수년이 지났고 지금의 기형적 신문시장이 형성됐다.

이 세 신문사가 쏟아내는 이야기 외에 다른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됐다라는 말이다(이는 장갑차 여중생 사건에 대해 이들 신문사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소식을 접하게 됐다라는 점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거창하게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들 신문사가 만들어 내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빅3 신문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아침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혜택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선, 지역언론육성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언급할 필요도 없는 ‘도시 근로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팍팍한 일상이나 허덕이는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도시근로자’ 수준에는 맞게 영위될 수 있을게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됐던 일련의 투쟁과 얼마전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서 있었던 규탄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법을 비롯한 신문개혁 유관 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를 얻어내야 한다.

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힘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힘들지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이러한 승리로 새시대 열자

“50만원인상 쟁취”, “인천일보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 “생동력이 넘치는 회사를 만들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의 임단협을 앞두고 경기본사 노조원들의 투쟁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03년 임단협의 의미는 어떤 다른 현안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우리는 지역언론육성법 제정을 앞두고는 등 향후 지역언론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에서 임단협을 맞이했다.

이같은 많은 변화를 직면한 인천일보 지부는 이제 창간 15년을 맞아 언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해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우리는 그동안 패배주의속에 살아왔다. 좌절도 있었다. 좌절이 우리를 패배주의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일어나자. 다시 우리의 생존권과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9년여간 한 가족의 가장으로, 언론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본인이 받는 월급조차도 밖에 내놓지 못했고 ‘기자가 월급으로 사냐’라는 다소

영똥한 논리에 우리는 생존권조차도 잊고 살아왔다.

그리고 지방지 기사를 보는 뼈뺌하게 보는 사회인식, 가정에 돌아가도 미안한 아빠로 기를 펴수 없었던 것이 언론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이제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는 노조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승리하자, 꼭 승리해서 자랑하고 싶은 아빠, 존경받는 기자로 살아가고 싶다.

우리 경기본사 노조원들은 이러한 소망을 모아 이번 임단협에 임하고자 한다.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는 신문의 질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보도, 권력과 금권에 굴하지 않는 보도로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노조의 단결만이 살길이다. 단결은 우리 노동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자.

〈홍성수 조합원〉

수습기자의 눈

수습기간은 ‘꿈’이 ‘인간’ 되는 시기...

아직은 설익어 뜯뜨름함을 품고 있는 내게 3개월 수습기간은 꿈에서 인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마늘과 쑥을 곱씹던 시간과도 같았다.

맨 처음 신문사에 입사했을 당시 무뚝뚝하게 눈인사를 던지던 선배들의 눈초리에 몸둘바를 몰라 술술 눈치만 살피고 쉽사리 담배 한가치 태울 수 없어 짧은 금단현상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신문사란 거대 조직의 시스템 파악이 되질 않아 선배들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잦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평생 들어도 모자랄만큼 ‘이씨~ 똑바로 해’란 말을 무수히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해도 자칭 ‘기자’로서 사스마와리의 대장 행세를 하며 뽐뽐한 고개가 휘어지질 않으니 3개월의 격세지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회부 제일 끝에 위치한 내 자리는 뒤로는 체육부장님이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면 편집국장님이 포진하고 계시며 왼쪽으로 뼈뺌하게 앉아 있으면 편집국 전체가 한눈에 조망된다.

그래서 쉬운 행동거지보다 살살 선배들 눈치(?) 살피는 일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박오 선배가 던지는 한마디는 마음속을 들켜 버린 듯 얼굴이 빨개질 때도 많다.

“야 너 눈치나 살살 보고 앉아 있을래”

아침마다 9시15분쯤 정확하게 사건 체크를 하시는 시경 캡의 전화에 늘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고 경찰서를 출입할 때마다 느껴지는 냉랭한 눈초리에 기분이 언짢을 때도 많으며 낙중에 대한 불안감에 아침마다 타사 신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이런 모든 것이 아직은

낮설 때가 많다.

이래저래 수습으로써 내가 하는 어설픈 행동에 선배들이 수습을 보며 ‘반쪽인간’이란 선배들의 말씀이 간혹 마음에 와 닿는다.

요즘 수습을 끝내고 내가 가장 고민 하는 것 중 매번 잠자리를 편치 않게 하는 두 단어는 ‘매너리즘’과 ‘책임감’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긴장 속에 시뻘건 두 눈으로 기사를 찾아 헤매는 올곧은 기자로서의 사명을 과연 5년이나 10년이 지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마음 속에 은연 중 품고 있는 ‘오늘도 무사히’란 바람을 현실로 만들진 않을런지 또한 나의 어설픈 기사로 행여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몹쓸 칼을 휘두르진 않을지 이 두 단어를 기자로서 직을 수행할 동안 마음속에 꼭꼭 담아 놓을 자신감을 세우기에 나의 수양에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짐들을 조금은 쉽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늘에 신이 존재 한다면 지상에는 부모님이 계시듯 신문사에는 선배가 있다고.

선배님들.

솔직히 많이 모자라고 아직은 어설픈 것 알을 갠 새끼 기자지만 젖은 날개가 마르고 부리가 날카롭게 솟으면 호랑이도 잡을 강한 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갇힌 날 많이 깨 주시라구요.

〈이주영 조합원〉

쌈여만 가는 식권... 어찌해야 좋을까요?

구내식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는 한달전부터 식권을 조합원에게 강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 경영자도 우리에게 메뉴를 알려주어 우리의 발길이 식당으로 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20장의 식권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내 동료들과 점심 약속도 있고, 거래처 손님과의 약속도 있고... 서랍속에 쌓여만 가는 식권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전 회사와 식당 경영자에게 식권 해결방법 아이디어를 몇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오후시간에 **분식 판매**를 한다. (김밥, 떡볶이, 부침개... 등등)
2. 식당내부에 **간이 매점**을 만든다. (과자와 약간의 군것질 할거리들... 음료수도 좋고..)
3. 조합원들끼리 식권을 모아 간혹 **삼겹살 파티**를 열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가벼운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식권을 이용해 조합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져 제 서랍속의 식권이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들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노조 홈페이지 『약자지결』에 올려주세요.

노조 홈페이지 새단장 내용면에서 확 달라져 www.incheonnojo.org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홈페이지가 지난 16일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우리들의 온라인 세상은 종전 홈페이지와 달리 시각적, 내용적인 면에서 적잖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우선 색채가 눈에 띄게 보강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있는 듯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 듯한' 이란 표현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방문이 필수적이겠죠?

내용면에서는 우선 온라인 투표란이 마련돼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평가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달력과 함께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게을러 혹시라도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태를 방지코자 마련한 배려이니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언론육성지원법 등 신문개혁 입법 쟁취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자료와 소식도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됩니다.

이밖에도 조합원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열린마당'에는 약자지결, 노조앨범, 조합에 바란다 등 하위항목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에피소드나 경조사는 물론 회사와 조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올려주시면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편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김형태 부위원장님과 김황수 조합원을 비롯한 작업자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와 기록 하나하나를 모아 우리 조합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기장' 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모두 우리들의 새로운 집 장만을 축하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런일 저런일

▶심동열 조합원(편집본부)의 첫 딸 선아의 돌잔치가 지난 5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내빈들이 무척 많아 음식이 딸릴 뻔 했는데 후문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김용주 조합원(경영전략본부)이 지난 6일 김한미씨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기원하며,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달 입사해 이달 8일 조합에 가입하신 신경희 조합원(사업본부)의 친할머니께서 16일 별세 하셨습니다. 조합가입에 대한 축하와 함께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네주세요.

▶창간 15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승진하셨습니다. 조합원의 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 식사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민심위보

시민편집위에 바란다

다양한 목소리로 건강한 인천일보를

시민편집위원회가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6월 한달간 발행된 신문에 대한 평가와 올해로 창간 15주년을 맞는 인천일보에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

대학교수와 시민·노동·사회단체, 시민 등 14명의 시민편집위원들은 이날 인천일보가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명실공히 '인천의 대표 신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민편집위원들은 잦은 인사와 기자 재교육 등 신문사 내부 문제에서 '관변지'라는 성토까지 낮 뜨 거운 질타를 쏟아부었기도 하고, 인천일보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박수도 보냈다.

시민편집위원회는 지금까지 전국 어느 신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도다. 옴브즈맨 형태의 개인적인 신문평가는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인천일보처럼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신문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칫 치부까지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민편집위원회를 구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데스크의 새로운 시도에 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이날 시민편집위원들도 인정한 바 있듯이 구성원자들의 면면은 '일반시민'이라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다. 언론 전공의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나 간부, 혹은 중소기업체 사장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편집위원들이 '진짜 시민' (?)들을 대변하기 보다 '압력' 수단으로 인천일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진짜 시민'들이 시민편집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

데스크들 또한 시민편집위원들의 지적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괜스리 시민편집위원을 인천일보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게 한다면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마지막 단추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올바른 신문을 만들겠다는 인천일보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시민편집위원들은 인천일보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또 소속집단 상층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저변에 깔린 다양한 목소리를 한아름 안고 오길 기대한다.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시민편집위원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로 신문을 평가하고 나아가 '신문'을 감시, 건강한 인천일보를 만들었으면 한다.